

여천NCC, 여수에서 집수리 봉사활동



고 말했다. <고우리 기자>

여천NCC 한사랑회 봉사단은 9월12일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에 위치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.

낡은 시설 및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경로당 할머니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.

집수리 봉사활동은 한사랑회 봉사단과 화양면 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.

한사랑회 회장은 “주말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”

<화학저널 2009/09/17>